

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설립

울산시, 연구시설 무상임대로 유치 성공 ... 화학기업 시험평가비 절감

화학 관련 국제공인시험, 공산품 검사, 품질인증을 관장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울산에 영남지역본부를 설립한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광식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은 12월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울산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및 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화학시험연구원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시 산업기반의 핵심기술인 시험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기초로 한 양질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역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또 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지역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울산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설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중구 다운동 대지 1만6529㎡에 연구동 등 건축물 3305㎡(사업비 60억원)를 건립하고 영구 무상 임대키로 했다.

화학시험연구원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지역 소재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시험 평가비의 20%를 할인 적용하고 지역 기업의 시설 이용 및 교육 등 다양한 기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학시험연구원 울산 유치로 지역기업의 시험평가 비용을 한해 약 15억원 절감할 수 있고 정밀화학지원센터 운영비 감소,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유입, 공공연구 개발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본원을 두고 2개 지역본부, 6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울산에 영남지역본부가 설립되면 현재 부산과 대구에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원과 대구·경북지원을 통합·운영함으로써 3개 지역본부 4개 지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7>